

비움, 그 거룩한 하강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30)

오늘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따라, '작은 예수'로 사는 길을 봅니다.



평온했던 하늘, 아무 일도 없어 보였던 비행



일시: 2022년

장소: 중국 남부 쿤밍 (Kunming)

기종: 보잉 여객기 (기령 6년 10개월)

상황: 정상 고도 순항 중

궤적의 이상: 비스듬한 하강이 아닌 수직의 곤두박질

보통의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 비스듬히 하강합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달랐습니다. 특이하게도 수직으로 땅을 향해 떨어졌고, 그 충격적인 궤적은 카메라에도 선명히 잡혔습니다.

[일반적인 하강]

[동방항공
MU5735]



감춰졌던 진실의 문, 4년 만에 열린 블랙박스



탑승자 132명 전원 사망.
잔해 속에서 블랙박스 회수 및 해독까지 4년의 시간 소요.
가장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기록. 이제 그날 조종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하던 진실이 입을 엽니다.

엇갈린 두 레버, 산산조각 난 '화평'



분석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다투었고, 한 사람은 비행기를 살리려, 한 사람은 추락시키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차단된 순간, 비행기는 찢겨 떨어졌습니다.

만약 그 조종석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면?



10년 전 독일 항공기 추락 역시 조종사 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파멸로 향하던 그 조종석에, 서로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단 한 순간이라도 존재했다면, 이 비극은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그는 친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절대 화합할 수 없을 것 같던 원수 된 둘을 하나의 원으로 묶으시다
막힌 담을 허물고, 갈라진 둘을 온전한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은혜





도저히 헐 수 없는 거대한 담을 당신의 '육체'로 무너뜨리다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막힌 담.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찢어
그 거대한 단절을 파괴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태초의 우주적 새벽,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의 웅장한 빛이
땅의 어둠을 향해
부드럽게 내려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신이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시려 가장 낮은 우리의 눈높이로 오시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의 진짜 의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한계를 온전히 겪으시려 우리와 완벽히 똑같은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ΚΕΝΩΣΙΣ · 비움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비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과 낮아짐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적 영광과 독립적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내 생각, 내 원함, 내 계획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첫 단계입니다.



케노시스적인 삶

우리는 매일 케노시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비움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

구원받고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왜 본질도 아닌 것을 두고 다툰니까?
쓸데없는 것에 매여 화평을 깨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람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첫걸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동등됨을 움켜쥐지 않고

신적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는 위대한 선택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종의 형체, 그리고 눈높이의 사랑

소통하고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피조물이 되신 창조주

강아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구하려면,
강아지가 되어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신이 인간을 이해하시려 인간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죽기까지 복종하심

위대한 하강의 가장 낮고 거룩한 지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역전

자기를 비운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Kinetic Seesaw Matrix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세

하늘과 땅, 모든 열방이 하나의 빛을 향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

케노시스는 곧 복음입니다

자기 비움의 끝에서 영광을 선포하다



=



=

복음
G O S P E L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전통이나, 그리스도나

사람의 전통

그리스도의 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8)

교회 안에 예수의 전통보다
사람의 전통이 앞서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전통보다
사람의 전통이 앞서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은 예수님의 삶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Kenosis)의 삶입니다.



바벨론 신드롬

가장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가장 커야 한다는 마음 —
교인 수를 부풀려서라도 1등이 되려는 욕망.
그것이 곧 바벨탑의 마음입니다.

#1 / 가장 큰



강(River)과 라이벌(Rival)

강을 함께 나누며 살다가도, 스스로의 몫을 채우려 다투는 순간 이웃은 라이벌(Rival)이 됩니다.



라이벌이 아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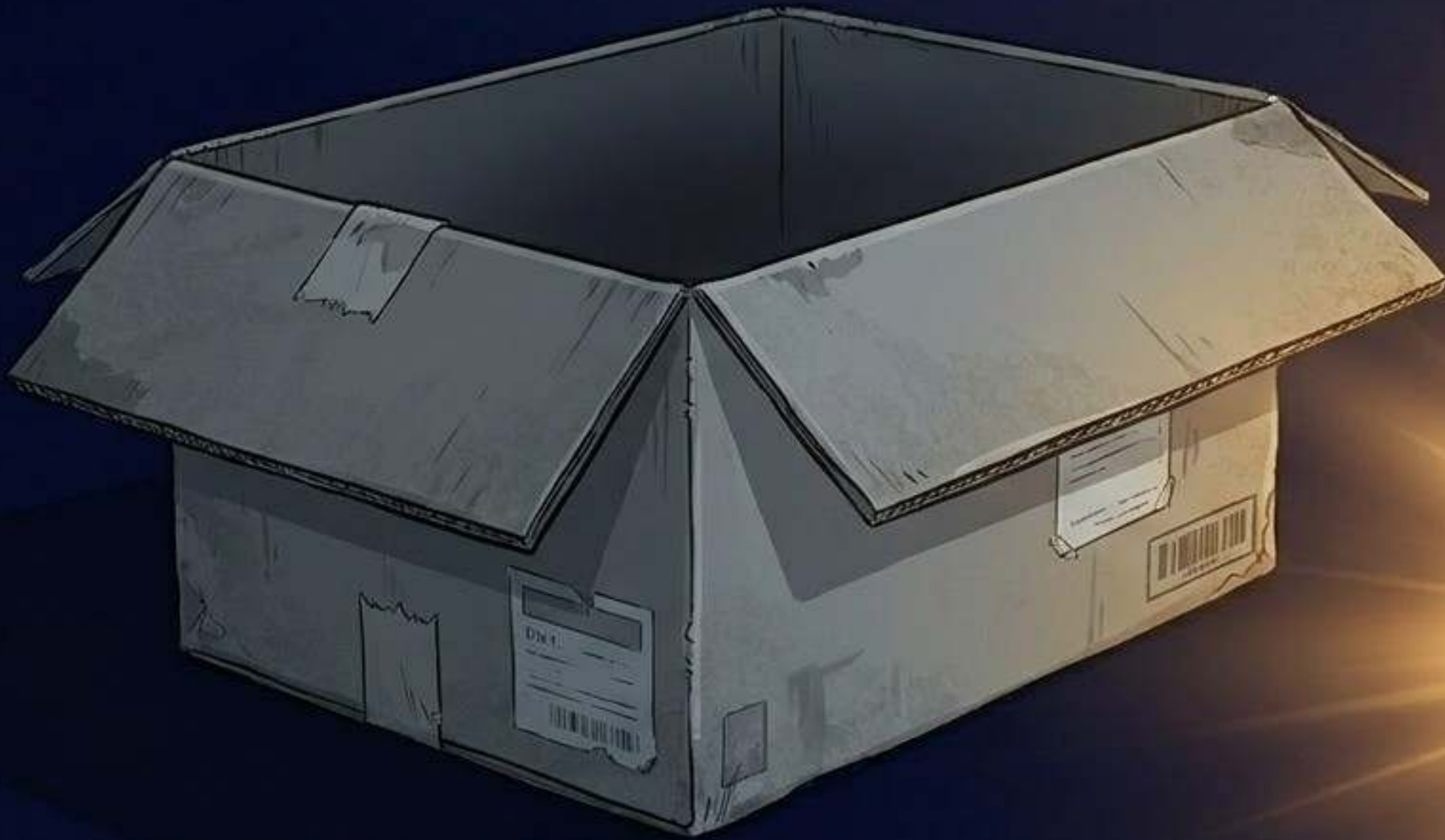
작은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사서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공교회(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베트남 메콩 강변, 벤째 마을의 두리안 교역처럼.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가장 귀한 것은 작게 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은 상자에 담겨 옵니다.
작은 것으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스테노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3-14)

‘스테노스(Stenos)’: 사방에서 압박받아 좁아진 상태.
지극히 제한된 자만 압박을 감당하며 들어가는 생명의 문.



케노시스, 비움과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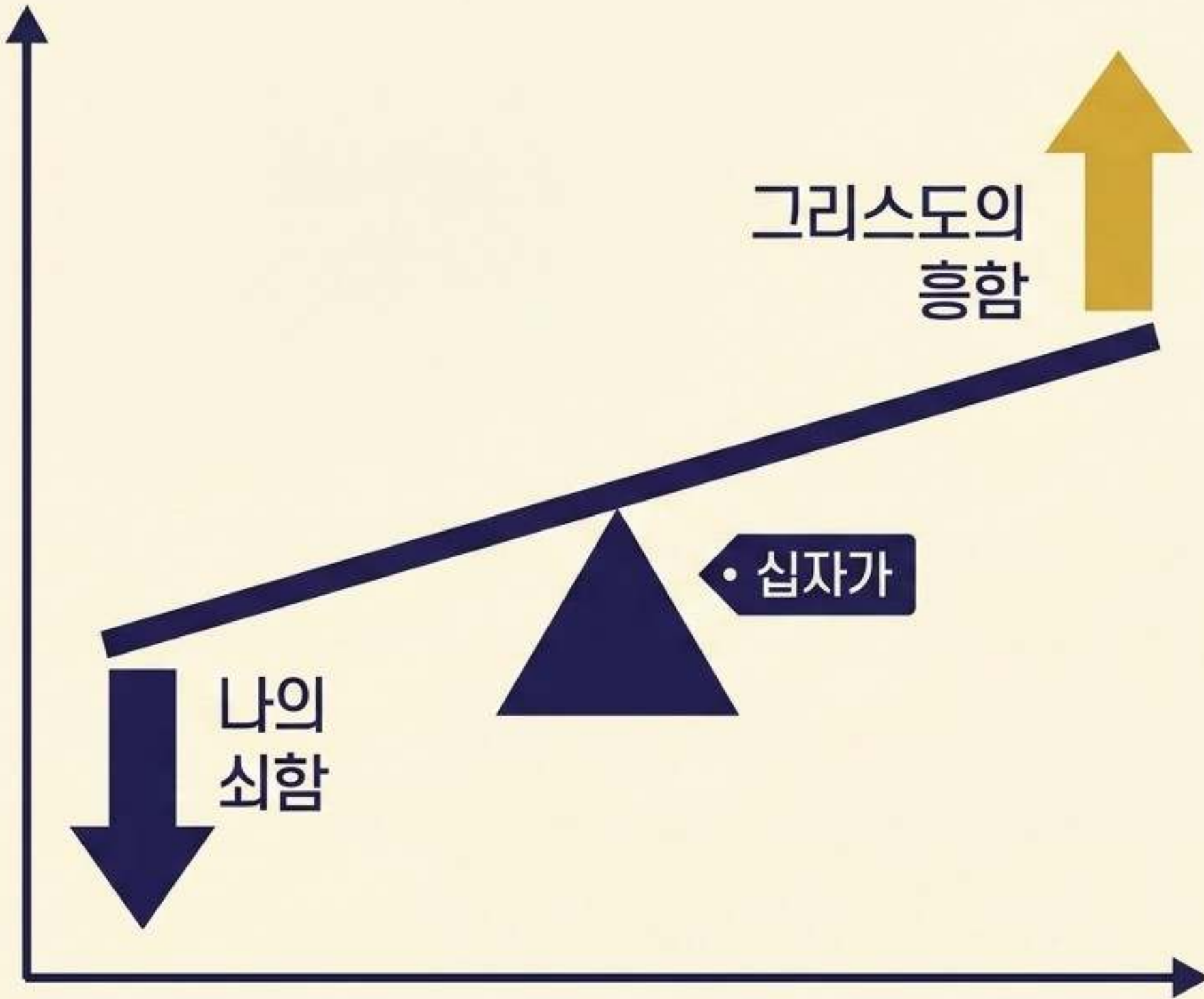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30)

내가 흥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동시성

흥함과 쇠함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비례성

내가 흥하면서 예수님도 흥하는 길은 없습니다.
철저한 반비례의 법칙입니다.



베트남 메콩의 작은 섬김. 소수민족 목회자들을 위한 일주일의 신학 세미나.
믹스커피 한 잔도 보배처럼 여기는 간절함.
작은 효율로 크게 섬길 기회가 그 낮고 좁은 곳에 있습니다.

호치민 리엔호 교회의 눈물 (참된 찬양)



시설이 화려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쇼일 뿐입니다.
강사로 선 제가 부끄러웠던,
진정한 부흥의 현장.

바벨탑의 그림자 (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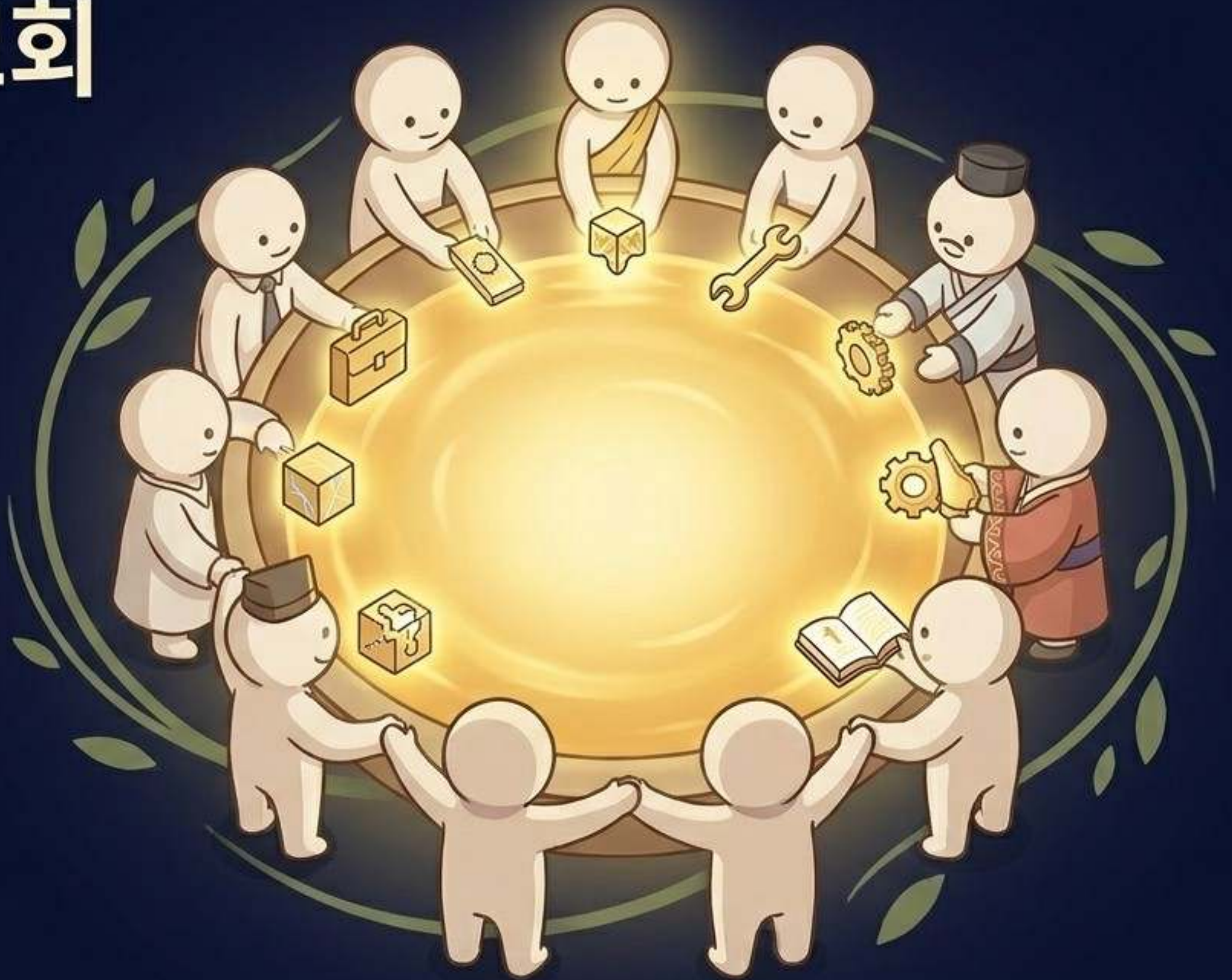
성육신의 온전한 영광.

예수님은 원래 비천한 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찬란한 영광을 자발적 의지로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CBMC · 일터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의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각자의 재능과 탁월성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 나누고 인정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진정한 연합을 이룹니다.



마음의 블랙박스가 해독되는 날.

우리의 마음속 다툼과 어두운 기록들은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사(赦)하셨습니다.
용서의 빛이 율법의 빛을 지웠습니다.

그 한 마디로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좁은 길을 빛과 함께 걷습니다.

